

한미 FTA협상 막바지... 내주 서울서 장관급회담

쌀·쇠고기·자동차 등 '빅딜'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종 담판 전력이 운과를 드러냈다.

결국 한미 FTA 협상 여부는 최대 10개의 핵심 쟁점을 '빅딜'을 통해 일괄 타결할 방안을 찾는 데 있으며 '빅딜'은 내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젠 진짜 주고받기"=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회의를 진행중인 김중환 우리측 수석대표는 20일(현지시각)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으니까 주고받기를 진짜로 하게 된다"고 밝히며 내주 통상장관급 회의에서 '빅딜'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빅딜 대상으로 거론되는 핵심 쟁점은 쌀과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방송, 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

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이다.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들 핵심 쟁점을 놓고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패키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미타결 쟁점은 덮고 간다=일괄 타결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는 쟁점은 이른바 '빌트인(built-in)' 방식을 통해 추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FTA 발효 이후 당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정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인준하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 때 고추, 마늘, 분유 등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뒤 논의하기로

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미FTA에서 이런 방식이 적용될 쟁점으로는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등이 거론된다.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이 자국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들어 우리의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풀려나지 않고 있는 만큼 협상을 끝 의사가 없다면 일단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일부만 수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합산' 등 요구는 추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도 개성공단과 관련된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하는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포함하되 구체적인 특례관세 범위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

■ 한미 FTA 통상장관급 협상 예상 쟁점

농산물	• 쇠고기 위생-검역해결 3월만 전 해결요구(미) • 예외없는 전 품목 관세철폐-개방일정제시(미) • 쌀-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 예외인정요구(한)
자동차	• 관세철폐시한(한: 즉시/미: 한국 세제개선따라) • 세제 개편(미: 배기량 기준 세제 전제철폐요구)
의약품	• 신약 자료독점 요구(미) • 신약 최저가 보장요구(미)
금융	• 우체국보험 FTA협정 적용요구(미)
서비스·지역 재산권 투자	•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요구(한) • 외국방송 다방화용-방송콘텐츠 쿼터제원화(미) • 케이블TV PP-기간통신 외국인 자본제한원화(미) •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미)
원산지	•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요구(한) • 한미FTA는 한-미 영토내 제품대상(미)

◇타결시점은 이달 30일=타결 시점은 오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환 대표는 협상 시한에 맞춰 31일 새벽에 타결될지 아니면 30일에 타결될지에 대해 3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시한이 기술적으로는 31일 오전 7시가 되지만 양국 협상단이 본국에 보고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 끝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다. 김 대표는 "비관보다는 낙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비가 남아있으며 '딜 브레이커'(협상을 끝 수 있는 변수)가 1~2개 더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딜 브레이커'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학교폭력 대책 한심하다



최재호
교육부 차장

지난 17일 보성군 모교 등학교 신입생 P모양이 동급생 8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P 양의 팔과 무릎 등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은 흔적이 7곳이나 발견됐고, 몸에는 심한 멍자국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학생 8명은 P양의 신체일부까지 촬영한 뒤 "신고하면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폭력의 심각성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학교는 입학 초기인데다 방과 후 발생한 일이라며 정확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힐 뿐이었다.

사건발생 후 지난 21일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년초 학생생활지도 관련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그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학교폭력 근절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었다. 그야말로 탁상에서 마련한, 효험도 없을 것 같은 '사후 약방문'이었다.

물론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조직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2005년 463건에서 지난해 432건으로 학교폭력이 소폭 감소했다고 내놓았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의 집계에서 보듯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는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2년 사이 학교폭력으로 연루돼 형사 처벌된 청소년은 광주·전남에서만 2천 명을 넘어섰다. 이 정도 차이라면 교육청의 통계는 그저 일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보내온 자료나 수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특히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여학생 폭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었고 저연령화나 여학생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통계차이에 대해 "일선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학교폭력이 교육청만 나서서 해결될 일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당국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머리를 맞대면 그런 상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안 보다는 뭔가 실효를 거둘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lion@kwangju.co.kr

美 "FTA고위급 협상서 쌀 논의하겠다" 통보

미국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쌀 문제도 거론할 것임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고위급 협상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고위급 협상에서 쌀 문제가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크라우더 USTR 수석협상관이 오늘 고

위급 협상이 끝나기 직전, 다음주 양국 장관급 협상 대상에 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 차관보는 "미국측이 쌀 문제 제기의향을 밝힌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 입항 미국의 최신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9만7천t)와 이지스함이 22일 부산에 도착, 입항하고 있다. 길이 333m 높이 63m 규모의 이 항모에는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 85기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고 5천680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다. 가격이 48억달러인 레이건호는 25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 참가해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갖는다. /연합뉴스

KF-16 정비기록 허위입력

공군, 추가 적발...점검대상 엔진터빈 60개 중 10개 '이상없음'

KF-16 전투기 엔진의 핵심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이를 교체했다고 허위로 기록한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공군 관계자는 22일 KF-16 전투기 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날개) 지지대'의 분해작업 기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3개 엔진 터빈 가운데 1개에서 지난 달 사고기와 유사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비사들은 교체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교체했다고 '항공기 정비정보체계'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공군 정비사들이 정비기록을 허위 기재한 사례는 지난 달 13일 충남 서해 앞바다에 추락한 KF-16 한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엔진 제작사인 미국 플랫&휘트니

사(社)는 1993~1994년 제작된 엔진의 블레이드 지지대 가운데 '코드'가 표시된 지지대가 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2000년에 발견, 2004년까지 엔진 정비시 이를 교체토록 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달 사고 발생 후 김성일 참모총장이 블레이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60개 엔진 터빈을 철저히 점검할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2000~2004년 6월 사이 '코드'가 표시된 블레이드를 교체했다"고 기록된 26개 엔진 터빈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해한 10개 엔진 터빈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나머지 50개도 완전 분해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형근 의원 방북시도 북 거부로 무산된 듯

한나라당 '대북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인 정형근 의원이 지난달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당국과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초 기념사업회의 방북 예상

자 명단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자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념사업회는 북한측과 '2009년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2월에 방북할 계획이었

으나, 북측의 연기요청으로 이달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돼 있으며, 함세웅 이사장과 영화 '도마 안중근'의 감독 서세원씨 등 8명이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9급공무원시험 [일반행정] 합격보장반 모집

합격보장반 10명 모집 (남자 5명, 여자 5명)

정원 30명 | 제1남성반: 10명 | 제2여성반: 10명 | 남여혼합반: 10명 | 개강 4월 9일 | 입학 7월 1일

학원사실	수험생 특징	학원장 조대원님	수강생 의무사항	9급공무원시험 필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률 95% 보장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률 95% 보장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률 95% 보장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률 95% 보장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률 95% 보장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합격후 100% 취업

전남대학교 후문 건너편

메가 고시학원

☎ 226-5050